



아시아의 길을 가르치고 있건만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 이 경 호

본 원고는 지난 2011년 9월 27일자 기호일보에 기재된 칼럼으로
영림목재(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 편집자 주 -

1996년도에 설립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그동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함께 추진해 온 국내의 일관수송용 파렛트 표준화를 정착시키고, 눈을 아시아로 돌려
각국의 물류 정부인사 및 물류관련 책임자 40여명씩을 교육시켜 왔다.

매년 지식경제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2007년 태국, 2008년 베트남, 2009년 말레이
시아,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우리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각국
교육생들의 D/B까지도 출공 지금까지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협회소속인 엄재균 박사(명지대학교 교수)와 박은규 고문 등의 스태프들이 제작한 교재를 통하여 유통 및 물류서비스 강화와 인력양성 교육을 시킨 후, 필자가 본 협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으로 그 나라에서 이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때의 뿌듯함과 자긍심은 대단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이 우리처럼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 아시아 일관수송용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이하 ULS)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민간 교류 및 무역증진과 물류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행사에 이어, 아시아 통합물류표준화와 효율화의 추진 주체인 '아시아 파렛트 시스템 연맹'(APSF)의 민간 국제기구 회의 및 총회를 아시아 9개국인 한국·일본·중국·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및 인도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개최하게 된다. 협회와 함께 파렛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이 APSF의 일본측 초대회장에 이어 2대 회장으로 중국을 제치고 당당히 선임된 서병륜 회장(LogisAll회장)은, 20여년간 국내의 물류선진화를 이끌어 오며 파렛트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분으로 유명하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인도의 뉴델리로 확정하고 현지의 인도 산업경제부, 산업연합회, 산업품질 인증위원회, 산업정책촉진부 등의 협력하에 <제5차 ULS 컨퍼런스 및 제6차 APSF총회/ ISO-TC 51 아시아분과위원회>가 10월 11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경부 김준철사무관이 참석해 한국 유통물류의 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더 한층 양국간의 물류정책의 수행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2010년 양국 무역규모가 170억 달러로 전년대비 40% 성장에 이르는 등 양국 경제간 시너지와 성장이 괄목할만한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즈음 지속성장을 위한 ULS의 보급 및 파렛트·컨테이너의 아시아 표준화 등 실행의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을 시기에 이러한 행사는 매우 그 의미가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천에서 매년 가을에 열리던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가 금년에는 취소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국내 유통은 물론이고 수출입 과정에서 물류업무의 중요성이 효율과 원가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주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원을 하여 이끌어 가야만 소위 '경제도시 인천'을 앞당길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깝다 못해 어이가 없다.



이 전시회에 우리회사도 매년 적지않은 부스를 임대해 제품들을 전시하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도 안내장을 발송하여 초청을 이루어왔다. 물론 킨텍스 전시회에도 줄곧 참여하고 양전시회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신제품 개발의 영업화 및 물류정보 시스템의 교류 등을 추진해 온 것이다.

특히 인천 컨벤시아에서의 전시회는 많은 인천 기업의 바이어 또는 거래선들이 상담 중 공장을 직접 방문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곤 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매년 개최할 것이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천에서 미팅을 갖자고 상담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물류전시회의 중단은 시 재정과 연관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특히 육·해·공을 무대로 조달·수송·배송을 통해 특화된 물류서비스로 경제를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인천에게 무엇이 우선 필요한지를 다시한번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한쪽에선 주변국가로 나아가 물류를 가르치고 국위를 선양하며 백년대계를 지향(指向)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선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지양(止揚)하고 있는 지를 말이다.